

신성장 동력, 한국경제 활로 열까

5년 뒤 부가가치 생산액 2배 늘어

새 일자리 88만개 창출

민간 투자에 성과 달려

5~10년 뒤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을 거리로 키울 신성장 동력 22개가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22일 확정됐다.

서남부 KAIST 총장이 지휘한 신성장동력 기획단은 지식기반 경제와 신기술의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모델을 정착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추진으로 5년 뒤 부가가치 생산액이 2배 이상으로 늘고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88만개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양성의 길잡이인 신성장동력이 기획단의 전망대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과거 정부의 비슷한 국가 전략과 달리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밀그림을 그렸지만 발굴 작업은 3월 28일 발족한 민간 중심의 기획단 위주로 이뤄졌다. 기획단은 에너지·환경 산업과 주력 기간산업, 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4개 분야와 18개 소위원회로 구성했으며 360여명의 산·한·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기획단은 문화콘텐츠를 제외한 21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에 따라 신규 일자리를 암으로 5년간 88만명, 10년

으로 매년 일자리가 17만6천명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기획단은 신성장동력에 2013년까지 모두 99조4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중 민간의 빚은 92%인 91조5천억원으로 신성장동력의 성과는 민간의 투자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획단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 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모든 분야의 핵심 규제 개선을 속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센 도전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법 정부 정책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동근 성장동력실장은 “기획단은 친기업적인 민간 중심으로 구성돼 출조제 폐지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정부 건의가 포함됐다”며 “지경부는 가급적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은 226만명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이런 전망이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이런 전망이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15만 명선에 그치고 있지만 신성장동력 만

여야, 정기국회 이념대결 예고

한나라 '좌편향' 교과서 개편 등 문제 제기…민주 "정치 공세 좌시 않겠다"

18대 정기국회가 여야 이념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논란을 일으키며 대폭 수정할 뜻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과거로의 회귀'로 규정, 전면부쟁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념 대결은 금산 분리와 부동산 세제 등 각종 정책을 놓고도 이어질 조짐이다.

더욱이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이익·노조단체까지 이 같은 이념 대결에 가세하면서 난데없는 이념

논쟁이 하반기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념 대결의 최전선은 교과서 수정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자 제주 4·3 사건 및 햅쌀정책의 교과서 기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이른바 '교육 좌편향' 문제제기를 통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에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인 만큼 적절한 수정을 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정권 자체를 좌파로 몰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이런 움직임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과서 문제 외에도 각종 정책을 놓고 이념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 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교육위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여부가, 재정위에서는 징벌적 과세 비판을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논란이 이념 대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22일 국회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햅쌀정책 명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 대북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28일부터 러시아 공식 방문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3박4일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을 모두 둘러보게

된다.

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방문 다음날인 29일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북핵사태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한 뒤 공동 성명을 체택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또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남·북·러 3각 사업과 우주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원자력 협력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성 발사체 공동 개발을 위한 30여건의 협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중장

기적·안정적 도입과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개발 지속, 우리 기업의 러시아 유망광구 참여 등이 집중 모색된다.

아울러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2012년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둔 인프라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 문화·학술·청소년·체육 교류 확대 등도 강구된다. /연합뉴스

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과서에서 햅쌀정책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과거 대북정책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며 “이것은 사실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 한빛고시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

전국 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 234-0234

개강 10월 1일

공무원 합격 암도적 1위

교육행정/ 농업직/ 기술직/ 사회복지/ 출판직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

생활안내

광고점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 47년간 公務員 시험에 전국 최다의 합격에 대세(大勢)를 이어온 중후한 無等을 만나세요. =

7·9 금 공무원 합격 강좌

○ 강좌종류: 행 교 세 관 법 경 철 교 보 보 복 군 소 기 전
○ 강좌기간: 10월 1일(주·야간반 모집)
○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총 2회원, 1년 1회원)
○ 합격 시까지 (강기)회원
○ 수강료: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 「無等」은 「꼭」 합격 할수 있다는 確信 을 드립니다!! =

광주 동부서부 (종합초교 후문입)

무동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작특강
최종문제풀이특강

9월 16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18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현재 접수중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서구점 ☎ 361-8111
▶ 능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대구점 ☎ 268-8111
▶ 학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풀빌딩 4층